8.15 해방 9주년을 3개년 계획의 완수를 위한 빛나는 투쟁 성과로 맞자!

Title: Hwalssal
No. 44, July, 1954

RETURN TO
THE LIBRARY OF CONGRESS
DIVISION OF ORIENTALIA

6
Copy
0647
MAR 31 1955

Please return to the Korean Unit

THE LIBRARY OF CONGRESS
DIVISION OF ORIENTAL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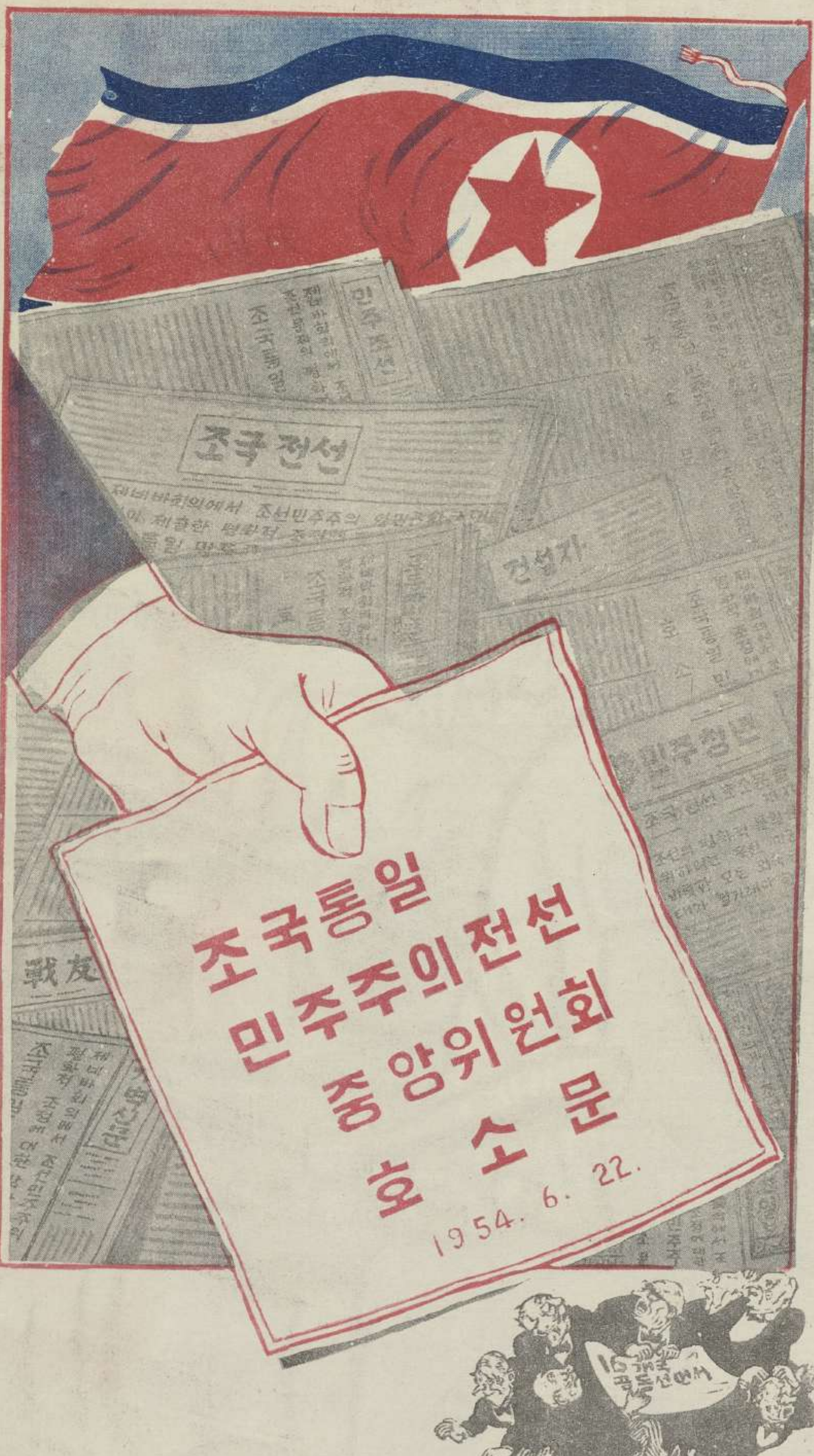
LC

44 시사만화잡지

1954.7

활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원광수 그림

제네바 회의에서 우리공화국 대표와 쏘련및 중화인민공화국 대표단은 조선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정당하고 실천적인 방안들을 제기하면서 회의의 마지막날까지 성의있고 참을성 있는 노력을 기울있다 그러나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은 파렴치한 음모로써 끝끝내 조선문제 토의를 파탄시켰다 지금 원수들은 조선정전을 파괴하려는 음모를 표면에 내놓으면서 새전쟁도발을 획책하고있다 전체조선인민들은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위원회의 호소를 열렬히 지지하면서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의 흉악한 죄악을 규탄하고있으며 평화적 통일을 위한 물질적 담보로되는 三개년 계획을 더욱 치열히 전개하고있다 우리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투쟁할것이다 조선인민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것이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계속 완강히 투쟁하자!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 숙망이며 확고부동한 지향인 조국의 평화적통일— 이것은 우리인민의 민족적리익과 조국의 장래발전을 위하여서만 사활적 문제로 되고있는것이 아니라 또한 현하 국제긴장상태의 완화와 세계의 공고한 평화유지를 위하여서도 가장 절실한 문제로 되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조선인민과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정실한 사람들은 제네바회의의 소집을 열렬히 지지하였으며 제네바회의에서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것을 완강히 요구하였었다 그러나 제네바회의에서의 조선문제 토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과 쏘련및 중화인민공화국대표단들의 시종일관하고 진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그를 추종하는 서방측 대표들의 파렴치한 파괴행동에 의하여 결국 파탄되고 말았다 다아는바와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석대표 남일외무상은 벌써 4월27일 회의에서 조선의 민족적통일의 회복과 전조선적 자유선거실시에 관한 3개조항의 가장 정당하며 합리적인 실천적 방안을 제출하였다 이 방안에는 조선으로부터 미군을 비롯한 일체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조선인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전조선자유선거를 실시하며 극동평화유지에 관심을 가지고있는 관계국들에 의하여 조선의 평화적발전을 보장할것을 예견하고있다 이방안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열망하는 조선인민의 참다운 목소리를 반영한것이였으며 조선문제 해결의 유일하고도 정당한 길인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대표 주은래외교부장은 조선문제의 평화적조정을 위한 합의 도달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우리공화국 대표단의 방안에 보충하여 조선전쟁에 참가하지않은 나라들로써 전조선자유선거실시를감시할 중립국 관찰위원회를 설치할것을 제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대표와 그에 추종하는 서방측대표들은 조선의 통일문제가 조선사람 자신의 일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려하였으며 조선인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미 파산당한 1950년 10월7일 유•엔의 비법적 결정을 조선인민에게 강요하려고 시도하였다 미제와 그의 추종자들은 이와같은 방법으로써 조선의 분할상태를 계속 유지하며 미군의 총검에 의하여 수립된 남조선의 반인민적 경찰테로제도를 북조선 지역까지 연장함으로써 그들이 지난날 유•엔의 깃발밑에 강행한 조선전쟁에서 달성하지 못한것을 제네바회의에서 달성하여 보려고 책동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문제의 평화적조정에 대하여 하등의 관심도 가지고 있지않았다는 사실은 회의개시후 1개월이지나서야 비로서 변영태로 하여금 소위 14개항목의「대안」을 내놓은것으로써도 실증된다 미국대표는 제네바회의에서 자기의 동맹자들에게 조선문제의 평화적조정을 파탄시킬 범죄적 음모에 가담할것을 강요하였으니 회의를 빨리파탄시키려고 책동하였다 그러나 쏘련대표단은 조선문제토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조선문제의 기본적 원칙들에 관하여 예비적합의를 보고 사소한 의견차의들에 대하여서는 보충적으로 계속 토의할것을 예견한 5개항목의 새방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최초부터 제네바회의를 파탄시키기위한 워싱톤의 계획을 가지고온 미국대표는 자국의 추종자들을 강박하여 최종적으로 회의를 파탄시키는 길로나갔다 6월 15일 회의에서 우리공화국대표단이 제출한 조선에서의 정전으로부터 공고한 평화에로의 이행을 보장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키기위한 새로운 6개항목의 제안과 쏘련대표단이 제출한 조선의 평화가 위협을 받지않도록 보장할것을 예견하는 공동선언서 채택에 관한 제안은 미국대표가 인공적으로 조성하는 파렴치한 방해를 제거하고 회의에서 긍정적결과를 가져오기위한 성의있는 노력의 표시였다 이제안은 조선에서 평화의 공고화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념원을 더욱 철저히 보여준 것이였다 그러나 미제와 그의 추종국가 대표들은 우리측의 정당한 방안과 성의를 무시하고 조선문제 토의를 파탄시켰다

조선인민들은 전세계인민들과 더불어 제네바회의에서의 조선문제 토의를 파탄시킨 미제국주의자들의 범죄적 행동을 증오와 분격으로 규탄하면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할 결의에 충만되고있다 조선인민은 어느때든지 통일된 민족으로 살아왔으며 또 살기를 원하며 그를 위하여 투쟁해왔고 또 투쟁할것이다。

오늘조선인민들은 그 어느때 보다도 정치 사상적으로 단결하여 애국적 력량을 총집중할것이 요구된다 때문에 조국전선은 전체 조선 인민들에게 지난 6월 22일『……제네바회의에서 조선문제토의를 파탄시키고 새전쟁도발에 광분하는 미제와 리승만 매국도당들을 반대하며 조선문제는 조선사람끼리 평화적으로 해결하기위하여 한사람 같이 궐기하라!』고 호소하고있다 조국전선의 호소에 더욱 힘차게 호응하여 원수들의 책동에 대하여 경각성을 일층 제고하여 걸음마다 폭로 분쇄하여야할것이다 조선전쟁이 보여준바와같이 우리력량이 강대한 조건하에서만이 정전을 달성할수있었다

그렇기때문에 전체 조선인민들은 민주기지를 강화하기위한 3개년인민경제계획의 완수를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궐기할 것이다

(권 홍)

거세찬 발 걸음

—레뽀르따쥬—

그대들의공훈은 길이 빛나리!

—김책제철소에서—

리 송 현

멀지 않아 콕스가 생산된다! 그리고 다루와 핏치도 련속 쏟아져 나온다!—

김책제철소 해탄로는 바야흐로 완성 되어 가며 웅장한 공장의 몸뚱이와 기계들은 모습도 새로히 복구되어간다

워낙 강철을 생산하는 제철소이라 공장 구내에 벌여진 모든 것이 웅장하기 짝없다 높이 얼기 설기 복잡하게 뻗어올라간 용광로이며 각종 철재와 수송관과 벨트콤베야! 그리고 단조함마의 굉음과 전기용접의 불꽃! 이모다 복구건설의 웅장한 교향악을 이 루었다

해탄로직장 종업원들은 오늘도 로 앞에서 억센 투쟁을 전개한다

철석대는 동해의 파도는 여울에 나와 뒹굴고 시원한 바닷 바람이 땀 흘리는 그들의 얼굴을 시원히 쓰다듬어 준다

나는 직장장동무의 안내로 내화련와로 로벽을 쌓고 있는 해탄로 앞에 다아 갔다

거기에는 쏘련고문기사 동무가 직접 기술지도를 하고 있었다 그는 기름이 묻은 작업복을 입고 해탄공들이 쌓아 올린 벽돌을 넓직한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때로는 손까락으로 두두려 보며 제대로 놓였는 가 하고 연신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다 본다

해탄공들은 그의 친절한 가로침을 받아 가며 하나 하나 내화 련와를 쌓고있다

이 제철소에서 해탄로의 복구는 큰 비중을 찾이 하고 있었다 미제날강도놈들에 의하여 로는 파괴될대로 되였다 해탄로를 복구하자면 특수한 기술적 지도가 필요 하였다

쏘련고문 기사는 후리 후리 하고 날신한 몸으로 이쪽 저쪽으로 재빨리 거닐며 기술지도를 한다

나는 그의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해방되던 9년전의 8월! 바로 여기 청진 해안으로 위대한 쏘련군대 용사들이 상륙하던 그때 장면을 눈앞에 그려 보았다

우리의 고혈을 빨아 먹던 왜놈들을 꺼꾸러뜨리며 쏘베트군대는 진격 하였다!

저 푸른 바닷가로 의로운 그들은 상륙하여 바로 이 제철소 앞에서 왜놈들에게 무리 죽엄을 주었으며 붉은 깃발을 휘날리 였다!

우리는 위대한 쏘베트군대를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목이 미지도록 만세를 불렀다

오늘 또한 미제국주의자들이 파괴한 우리공장들의 복구건설을 원조하기 위하여 의로운 쏘련기사들이 멀리 이땅에 와 로력의 땀을 흘리고 있다!

× × ×

정전후 이 제철소의 해탄로를 복구하는 과업이 제기되자 로동자들은 많은 기술적 애로를 느끼였다

위선 축로에 대한 경험이 없을 뿐더러 기술이 미약했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로벽을 전부 허무러 뜨리지 않고 부서진 곳 마다 보수할려고 했다

그러나 쏘련 고문기사는 파괴상태를 세밀히 조사한 다음 규석련와가 나쁘기 때문에 축열실을 해체하고 말끔히 소제를 하게 했고 기술강습을 조직하는 한편 몸소 자기가 로에 붙어 12호 탄화실의 깨여진 규석련와를 리용해가며 물초자에 섞어 다시만들게 하였다

또한 114개의 로문이 모다 공기가 침입 되는 것을 개조하기 위해 해탄로장 동무에게 과제를 주어 양쪽 후레므에 접근 되는 로문을 앙구리로써 홈을 만들어 거기에 절로물을 흘려 공기 침입을 방지 할수 있게하였다

그리고 폭탄 직털로 인한 진동으로 밑바닥이 들뜬 해탄로를 어떻게 처리 하느냐하는 문제가 제기되였을때 쏘련고문 기사는

『복구에서는 운전계단에 들어서 있을 수 있는 제 변화를 정확히 타산에 넣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해탄로에 화입을하면 저절로 메워지니 문제 없다고 가르치였다 해탄로 직장 종업원들은 이 가르침을 어더까지나 지침으로 연구하였다

그들은 혹심한 파괴 상태에 비추어 장입탄을 넣고 해탄의 압출 장입을 개시할때에는 탄화실에 변동이 있으리라는 것을 예측하고 이에 근거하여 해탄로의 열도와 운전시의 소성시간도 미리 산출하였다

쏘련고문기사동무는 참으로 능숙한 솜씨를 보이 였다 해탄로에 대해서는 어느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손끝안에 들어 쥐듯 알고 있었다

그는 또한 틈만 있으면 전후 복구 건설 시기에서의 위대한 쏘련로동계급의 투쟁경험을 로동자 기술자 동무들에게 소개하여 주었다

× × ×

그는 여전히 분주히 돌아가며 지도한다 높은 철재의 층다리를 오르내리며 마치로 기계들을 두두려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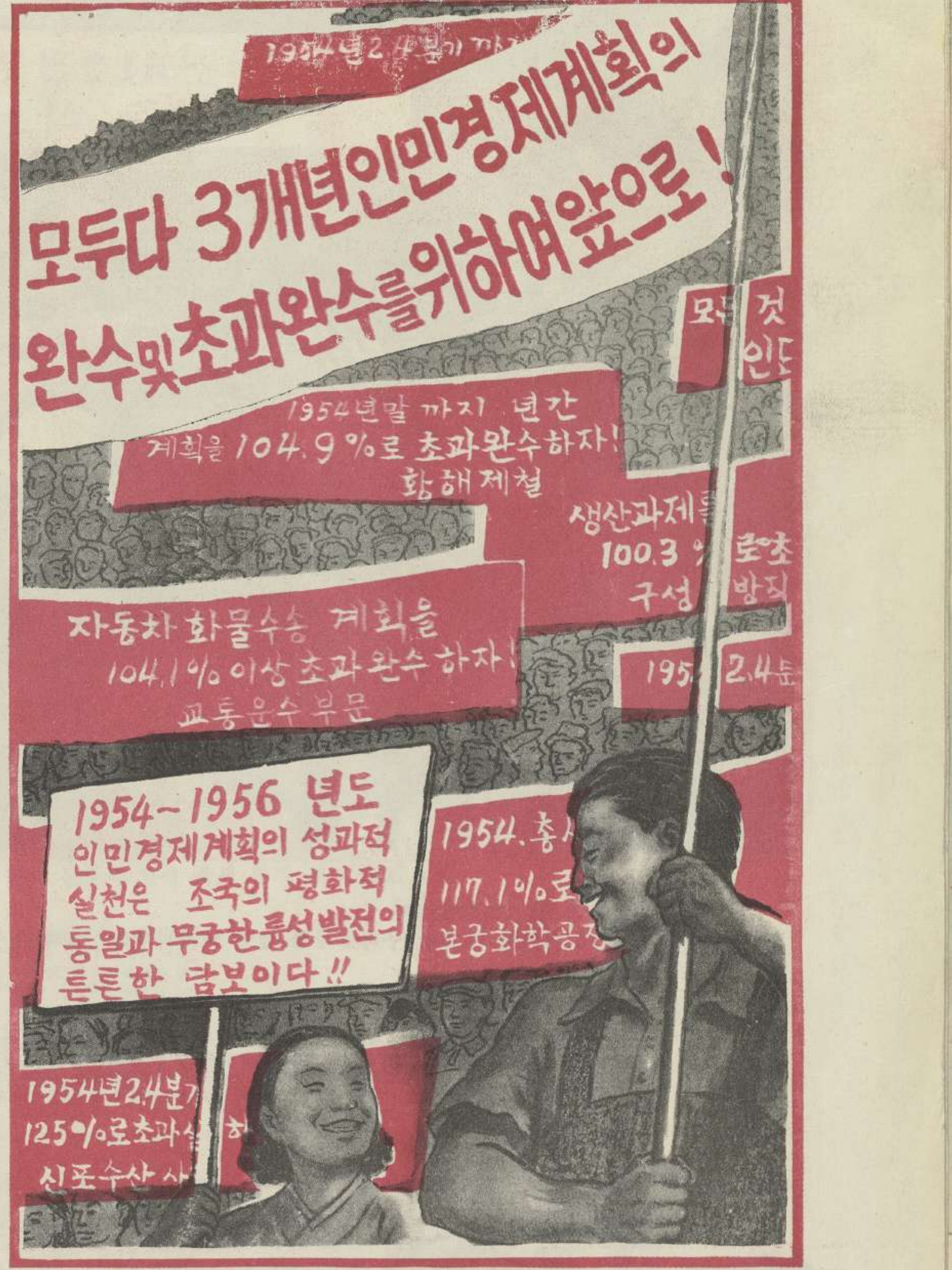
때로는 직접 로벽을 쌓기도 한다 넓적한 두 손에는 하이얀 가루 가 함빡 묻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방울방울 흘렀다 그 순간 나는 다시금 저 푸른 바닷가로 상륙하여 붉은 깃발을 휘날리던 쏘베트군대의 고귀한 모습을 눈 앞에 그리 며 그의 얼굴을 감격어린 눈초리로 오래도록 한자리에 서 서 바라 보았다

—의로운 벗! 그대들의 공훈은 길이 빛나리!

지축을 울리는 전동기와 한존짜리 단조함마의 철판을 두 두리는 굉음! 눈부신 섬광! 실로 웅장한 복구건설의 불 꽃은 튄다! 종업원들은 쏘련고문기사의 친절한 기술적 지 도와 방조를 받으며 해탄로를 복구한다

—이제 10월이 되면 콕스가 생산 된다! 수송관을 통하 여 콕스는 몇천도의 열도로 변하여 용광로의 첫불이 호 .로게 할것이다!

1954. 6. 25.



백인균 그림

—3개년 인민경제계획이 완수되면 우리나라 인민소득은 1956년에는 1949년에 비하 여 30%이상 장성됩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힘껏 일할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 없는 자랑과 행복감 을 느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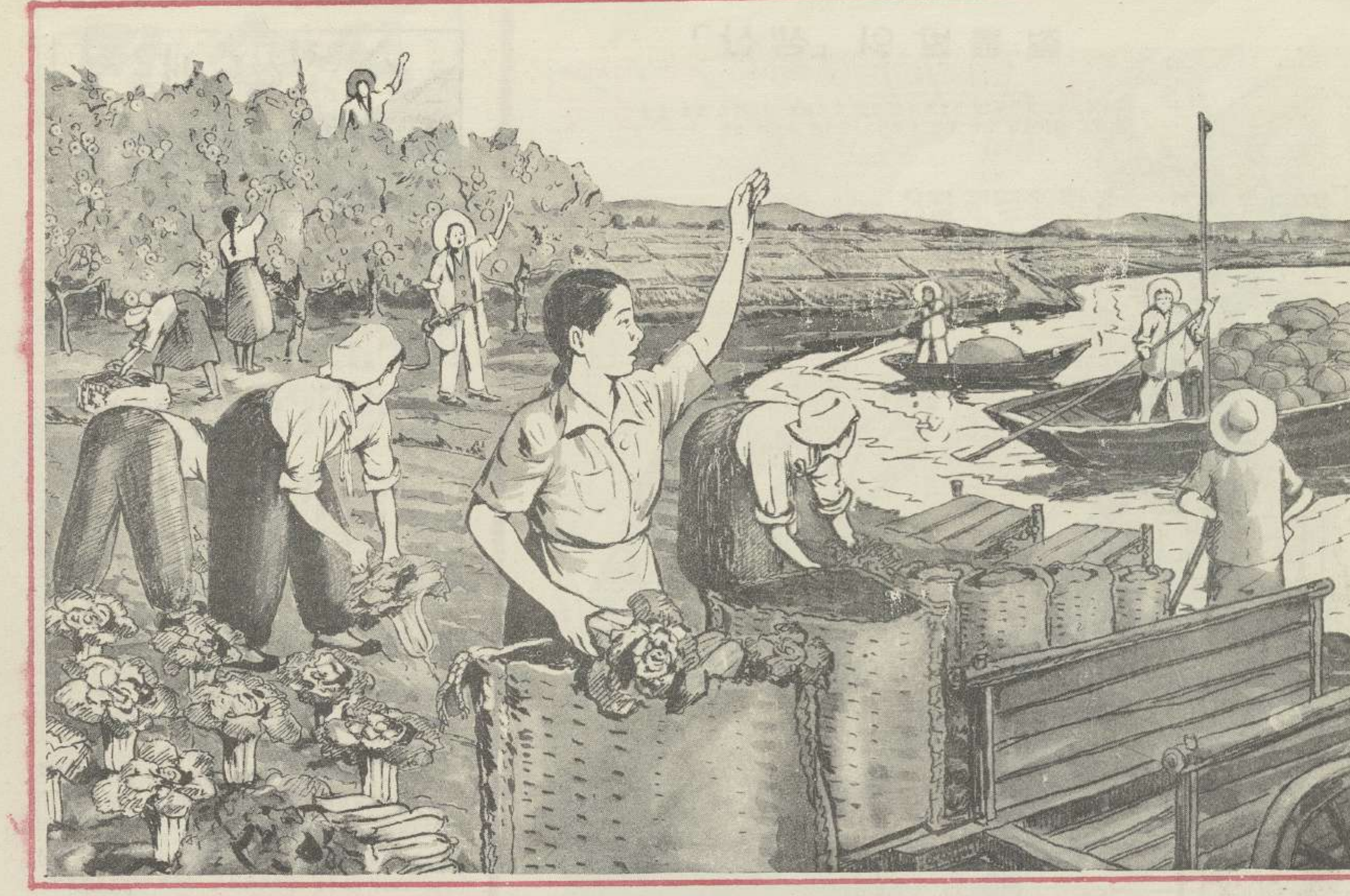
쇳물이 흐른다!

최 한 진 그림

—참 수고 들 하셨습니다
—오늘의 영예와 기쁨을 우리공장이 맡은 계획과제의 초과 완수에로 돌리 겠습니다

황해 제철소 제1평로는 우리 로동자들이 8·15해방후 처음으로 건설한 평로였으나 전쟁 기간에 미제 야만들에 의하여 혹심하게 파괴되였다 정전후 경애하는 수령의 교시를 받들고 황해제철소 로동자들은 평로 복구에 일떠섰다 그들은 쏘련기사 브르다 교브의 기술적 지도를 받아가면서 허다한 애로와 난관들을 이겨내고 지난 6월 6일에 제1호 평로의 출강에 성공하였다

농업협동조합



안 창 수 그림

—반 별 경쟁에서 누가 승리하나 봅시다!
—우리 반도 동무네 반에 못지 않게 하고 있다오!

만경대 남리 부락 농민들은 1954년 1월 9일 토지소유권을 보유하는 조건하에서 자원적 원칙에 의거하여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하였다 그후 그들은 개인 영농으로서는 실현하기 어렵던 제방수축공사를 완수함으로써 매년 수해를 보던 1.000평의 땅을 개간하였다 폭격지와 우회도로를 메워 3.420평의 논밭을 복구하였으며 900평의 휴간지를 논으로 복구하였고 1.500평의 밭을 논으로 전환시켰다 그들은 농민은행으로 부터 대부받은 자금으로 소2두와 새끼돼지 15두를 구입 하여 기르고 있으며 조합원들이 출자한 사과나무 150주와 포도나무 960주을 가꾸고있다 한편 8000평의 소채전을 경작하고있을뿐만 아니라 20톤의 화물을 적재할수 있는 배 2척을 건조하여 리용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생활은 날로 향상되여가고 앞날은 그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약속하고 있다

모내기가 끝난 넓은 신재령 나무리벌은 초록의 바다를 이루고 있다

푸른 하늘까로 흰구름이 뭉실 뭉실 떠 가고 있다

옥녀는 기쁜마음을 걷잡을수 없어 그저 흐뭇 하고 몸은 홀가분하여 날뜻하였다 그는 마을에 협동조합이 조직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작업반장으로서 모든 일에 솔선 나서서 일하고 있다

지금 제방을 쌓느라고 옥녀는 작업반원들과함께 삽자루가 휘우도록 흙을 과 올린다 반원들은 고팽이로 땅을 과며 들것에 흙을 담아 목도를 한다

『어기영 치기영!』

기운찬 소리와 함께 제방은 키 높이 쌓여 올라 간다

넓은 벌을 거쳐 훈훈한 바람은 어리광부리듯 불려오고 햇빛도 따사로히 내리 비친다

『이기영 치기영』

목소리는 더욱 우렁차고 제방은 시간마다 모습을 달리 한다 어떤 아낙네는 함지박에 흙을 담아 나르고 또 어떤 아낙네들은 직접 남자들 보다 못지않게 목도를 한다

전쟁중에는 림시조치로 실뚱을 치고 농사를 지였지만 지금은 전후 복구건설을하는 현장에 더 많은 식량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 제방을 튼튼하게 완비 해야만하였다

그렇게 하여야만 해마다 장마가 지면 걱정이되던 30여 정보의 논에 수해를 막을수 있었다

× ×

재령강물은 노루메 나루터에 와서 두갈래로 갈라졌다 큰 줄기는 남포 송림으로 흘렀고 작은 물줄기는 좁다라니 나무리벌로 뻗었다

평시는 물이 없어 조수가 들락 날락한다 그러다가도 비만 나리면 북바치는 조수와 내리 밀리는 냇물로 잠시간에 큰 물을 이루웠다

제방은 허리가 끊어지고 군데 군데 늪처럼 움직한 웅뎅이가 지었다

옥녀 작업반원들은 이 제방공사를 책임지고 십여일째나 일하고있다

옥녀는 어떻게 하면 이 제방을 튼튼히 쌓아 장마가 지더라도 물을 막을가 하고 골똘히 생각 하였다 그리고 작업복 주머니에서 수첩과 연필을 꺼내 무엇인가 적기도 한다 작업공정표의 다섯번째란에 동그람이를 커다랗게 그린것이다

『동무들! 공사예정은 앞으로 한달이 남았어요 일주일간에 수문과 제방기초 공사를 끝마추고 남어지 2주일동안에 제방 수축사업을 끝마칩시다 그래야만 장마가 지더라도 걱정 없습니다』

상기된 목소리로 옥녀는 말하였다

『수문은 무슨 수문? 제방을 한번 쌓으면 당대 갈줄 아나……그냥 팡팡 막 세……』

이렇게 말한것은 김초시 였다 그는 옥녀 작업반에서 제일 나이가 많으며 워낙 성격이 괴퍅스럽기로 이름나고 완고한 고집불통이 어서 낡은것을 고집하기도 했다

『수문을 놓았댔자 그리 큰 효력이 없을것 같구만… 해마다 이 뚝은 장마를 겪고나면 다시 막아야 했었는데…… 괘히 애 쓸 필요있나?』

『아저씨 그만 말씀 하세요!』

옥녀는 짤막히 말을 뱉는다

『그런 쓸데 없는 일을 해서 사람들을 고생시키지 마오』 김초시는 더욱 반대하여 나섰다

『홍수가 나면 수문으로 물을 뽑으면 되지 않아요』 옥녀는 가슴이 답답하였다

『반장의 말을 거역하는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농사를 지여 먹기를 그렇게 했길래 경험에서 그러는 거요! 여러분 우리 수문을 그만두는게 어떻소』

김초시는 모인 사람들의 얼굴을 한바퀴 뼹 돌아다 보며 말했다

『반대할려면 혼자 반대 할게지 남들까지 다 같이 반대하라구 왜 해요? 좋아요 아저씨는 그만두세요』

반원들은 김초시의 말을 더 참을수 없어 이렇게 말했다

『……싫거던 그만 두라구…… 로인보구 그렇게 말하면 못서…… 그런 말 버르장머리가 어데 있어 괘씩지않게……』

김초시는 도리여 뒤집어 걸고 옥녀를 막 닦아 세웠다 그리고는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김초시 로인의 논은 이 제방 아래에 있어 해마다 큰 비가 나리면 수해를 입었다 그래 김초시는 비만 나리면 남보다 더 속이 앙달아 돌아갔고 비가 멎기를 기다며 조수물이 내려가자 뚝을 여러군데 허무러 뜨려야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문을 만들게되면 누구보다도 김초시에게는 좋은 일이였다 그러나 김초시는 그 수문에 대한 의의를 모르고 종전대로 비가 나리면 뚝을 허트리면 되는데 하필 힘 들이여서 만들 필요가 있는가고 생각했다

옥녀는 입을 꼭 다물고서 집으로 들어가는 김초시의 뒷모습을 지키고 있다

흥분된 마음은 좀처럼 깔아 앉지않고 가슴이 뛰기만 했다

그러나 얼마후 옥녀의 마음은 저도 모르게 서글펐다 무슨 큰 실수를 한것같앳다

옥녀는 괜히 신경질을 부리듯 김초시에게 말한것이 몹시 후회되며 사업에서 혼란을 이르킨 것을 뼈 저리게 뉘우쳤다

——내가 좀 더 침착하고 노력했다면 김초시아저씨가 그렇게 뿌리치고 가지는 않았을 것이야……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김초시 아저씨가 도로나오게 해야지——

작업반원들은 제방 작업에 다시 착수했다

옥녀의 계획대로 수문공사도 진행되였다

한쪽에서는 수문을 설치할 기초를 닦기위해 흙을 팠다

『어기영차 어기영차 』

땀이 흐르는 구리빛 얼굴과 팔뚝이 해빛에 번들거리며 분주히 돌아 갔다

수문공사는 예정대로 성과있게 진행되였다

제방은 키 높이 구축되고 수문도 그럴듯이 만들어 졌다 옥녀는 무한히 기뻤다 그러나 마음 한쪽 괴로운 것은 김초시 로인의 일이였다 옥녀는 그후 몇번이나 김초시 로인을 찾아 갔었다 그러나 그는 옥녀와 맞나려고 하지않았다

× ×

그후 이틀채 내리는 비는 멎지 않았다 빗방울이 점점 커지더니 드디여 억수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바람이 왜를치고 불며 버드나무 가지가 우지끈 불어져 달아난다

『이 비가 멎지 않을려는가?』

협동조합원들은 민주 선전실에 모여 걱정에 쌓여 하늘을 쳐다보았다

옥녀는 자기들이 맡아한 제방이 근심되였다 비오는 창드리가 꼭 큰 물이 날것 같다 옥녀는 앉아 있을수 없었다

그는 이러나 밖으로 나가려 한다

『옥녀동무! 어디 갈래?』

『제방이 어떻게 되는지 가보겠어』

『비가 좀 멎거던 함께 가요』

『괜찮아 여러시 갈 필요없이 내가 가 보구 올테니』

옥녀는 밖에 나가 삽을쥐고 제방으로 뛰여갔다 다른 동무들도 뒤딸았다

누런 흙물이 소리를 치며 흘렀다 비는 조금도 멎지 않는다 이러다가는 얼마 안가서 제방이 위험할 지경이다

그리고 조수가 올라온다 사나운 물결이 제방을 휩쓸어 버릴것만 같았다

『큰일 났다 미리 제방 보수를 해야겠다……』

옥녀는 반원들에게 가마니와 삽을 가져오게했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가마니에 흙을 넣어 제방이 문어 질 듯한 곳마다 쌓아 올렸다

이틀채 줄곳 퍼붓던 비는 사흘되는 새벽부터 한희바람이 솔솔 불며 멎기 시작 했다 나무리벌에 자욱이 끼였던 안개도 차츰 가셔지기 시작했다 조수도 퇴조 하였다

옥녀와 작업반원들은 밤을 꼬박 새웠다

김초시로인도 자기 논이 걱정되여 어느듯 나왔다 김초시네 논 부근은 전부 물에 잠기여 빨리 물을 뽑지 않드면 안되였다 수문만 열면 물이 빠진다

김초시는 누구보다도 물을 뽑을 생각에 초조 했다 마음 같애서는 막 달려가 수문을 열어제끼고 싶었으나 김초시로서는 그렇게 하기 주저하지 않을수 없었다

『왜 내가 그때 반대 했던고……땅고집을 부리지 않았드라면 좋았을거……사람은 죽도록 배워야해 여든에 나는 시할머니가 손자며누리한테 배운다는 옛말이 이래두고하는 말이로군……』

김초시의 가슴속에선 이런생각이 꼬리를 물고 되푸리되였다

그때『자 이 수문을 엽시다!』

높이 외치며 수문에 닥아 선 옥녀의 목소리가 울리였다

작업반원들은 와—하고 몰려와 모다 힘을 합하여 수문을 연다

『아저씨도 이리 오세요!』

생각이 많아 우중충 서있던 김초시는 옥녀의 말이떨어지자 재빨르게 웃통을 벗고 첨벙 물속에 뛰어 들어가 수문께를 제낀다

왈칵 물이 밀려 넓은 재령강으로 퇴수 된다 제방을 삼킬듯 출렁거리던 물이 줄어져 간다

『인제부터는 장마가 져도 이 안에 30여정보의 논의 수해를 막을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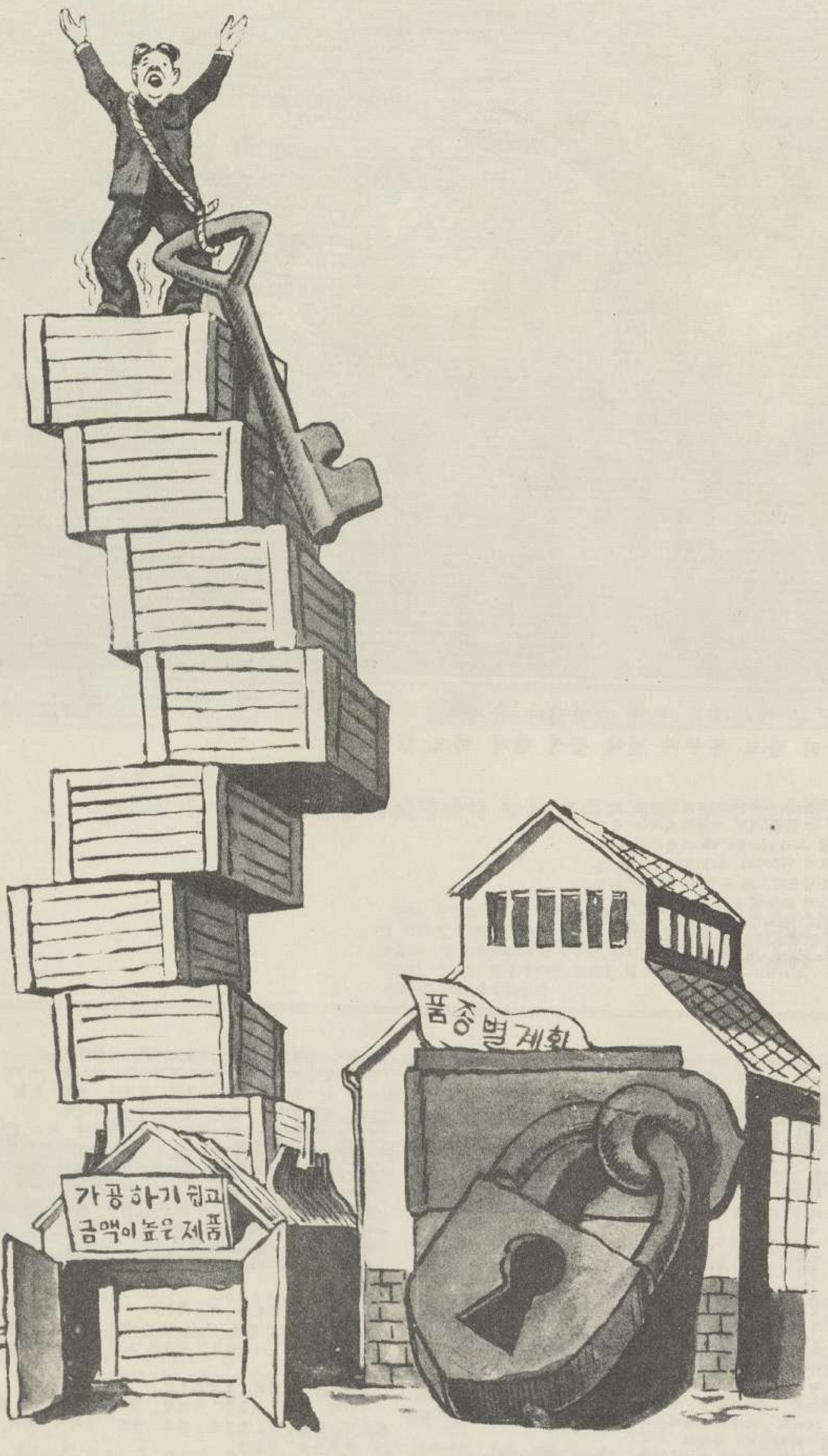
옥녀는 소리높이 외쳤다

수문으로 물은 막 구부덩 치고 나간다

논에는 모내기를 갓으한 벼포기가 파라니 물위에 잎사귀를 내어밀어 재령 나무리 벌은 눈이 아물 거리도록 푸르다 김초시는 뉘우치는 마음으로 수문을 바라본다

절름발의 「생산」

일부기업소들에서는 품종별계획 실행을 무시하고 가공하기 쉽고 금액이 높은 제품생산 만을 초과 실행하고「만세」를 부르고 있다



박승히 그림

—평잡는게 매야…금액상으로래도 계획을 달성했으니 잘 된셈이지!…
—(여보 자만하지 마시우…당신들과 같은 바루배기 양반때문에…계약체결한 공장과 기업소들에서 얼마나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아시유?)

천리수배로정

평북도 인민위원회 목축관리부장 장석호 동무는 관하 목장들에 대하여 매우 『세심한 배려』를 돌리고 있다

그는 관하 17개 목장의 분포도를 책상 위 유리판 밑에 딱 넣어두고 하루에도 몇번씩 그것을 드려다보면서 각 목장들의 형편을 이리 저리 궁리해보군 한다 이렇게 장석호 동무는 날마다 목장분포도를 품품히 드려다보면서 각 목장들에서 긴절히 요구될 여러가지 도구들과 자재들을 하나씩 둘씩 생각해내며 배정통지서를 내여보내고있다

× ×

북진목장에서는 다른 목장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본건설사업이 한창이여서 이런 저런 자재가 많이 요구되였다

그러던 어느날 도 목축관리부장의 도장이 찍힌 배정통지서가 시달되였다 누구보다도 지배인의 기쁨은 한량없었다 그는 곧 현장 지도원을 불러서 통지서를 뵈였다

『도에서는 제때에 자재들을 보내왔소!』 반가운 눈초리로 자재 목록을 훑어내려가던 현장 지도원이 갑자기 눈알을 뭇그리며 지배인을 쳐다보았다

「아니 그런데 야단났습니다! 낫 40자루는 해천에서 호미 60가락은 창성에서 꺾쇠 100개는 남시에서 인수해가라니 이건 도내 일주를 시킬작정이군요!……』

『무엇! 그것 참 곤난한 문제인데……』

지배인도 이맛살을 찌푸렸다 그의 머리 속에는 순간 북진에서 해천까지 왕복 400여리 창성까지 왕복 600여리 남시까지 왕복 800여리의 긴 로정들이 엉기 설기 떠올랐다 얼마후에 또 한장의 통지서가 배달되였는데 그것도 스패나 6개를 북중목장에서 인수해가라는것이였다

『그런것들은 얼드리면 코 닿을 북진 도영 농기구 공장에도 잔뜩 쌓여 있는데 하필……할수없지 그래도 빨리 가져오도록 해야겠소——』

지배인은 울면서 겨자 먹이로 곧 자재 인수를 위한 로력을 짜냈다

그러나 지배인의 이맛살은 도무지 펴질 겨를이 없게 되었다

„도내 일주 장거리 지시문"이 그 이튿날에도 또 그 이튿날에도 연방 꼬리를 물고 내려왔기 때문이다

3월 4일부로는 전척 2개를 의주 대문 목장에서, 3월 5일부로는 벤찌 1개를 룡천 북중 목장에서, 3월 6일부로는 톱 6개를 선천 국산 목장에서, 하루 건너 3월8일부로는 고무 장화 6족을 피현 목장에서, 또 3월 9일부로는 비누 20개를 선천 군산 목장에서 『해당 기관과 긴밀한 련계 밑에 기일 내에 현물을 인수함과 동시에 인수 정형을 즉시 부에 보고』할 것이라는 것이였다

지배인은 련속 파격을 받은 권투 선수마냥 머리가 얼떨떨 하였다 연 8,000 여리의 긴긴 로정들이 눈 앞에 팡아득하고 상부지시는 제때에 신속히 처리해야 되고—

아무리 대책들을 강구해보았으나 한창일이 바쁜 지금의 목장 형편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목장일군들은 도 목축관리부장에게『종전처럼 자재들은 도에서 한꺼번에 인수하여 각목장에서 출장을 올라 올때 그인편에 출고해달라』는「진정서」를 올리였다

며칠이 지나 목축관리부장의 회신이 나려왔는데 내용은 지극히『간단 명료』하였다

『상부지시대로 빨리 인수하고 곧 보고 하라』는 것이다

도에서 지도원이 내려왔다 지배인은 목장의 실정과 애로를 재세히 말한다음 자재 인수 문제에 관한 목장의 의견을 내놓았다

『남은자재가 없어서 그러는데 주는 자재도 못타겠다고 야단이요? 상부만 쳐다보지 말고 어서 인수하시요』

그러고는 또 새로운 배정 통지서들과 기타 지시문들을 한 꾸뎅이 고집어내여 놓았다

오수리
유충록

진수식

『밥사 다 제껴 놓고라도 배를 무어야지 배를 무어야 돼 어쨌던 첨 잡는게 때니까……』

지배인 박래원동무는 조선소 일군들을 다리고 상부의 지시에 의하여 원산으로 이전하여 왔다

이전하여 온 그는 사업의 선후차를 가려 내부원천의 조사정리사업과 기본건설사업을 진행시킬 대신에 첫날부터 생산만 외쳤다 우선 생산에서 성과를 올려 보자는 것이였다

다년간의 조선경험을 가진 로동자들의 건설적인 의견을 제쳐놓고 그는 모든 사업을 돌격식으로 내 몰기 시작하였다

『우리의 모든 력량을 목조선직장에 집중하여 승리의 첫 진수식을 향하여 총 돌격 합시다!』

지배인의 이말은 곧 하부에 시달되여 조선작업은 시작되였다

직장장 박근영동무를 비롯하여 기술자와 로동자들은 의아하게 생각했다

『지배인동무! 조사정리사업과 기본건설사업을 하지 않고 생산부터 할수 없습니다』

『경제일군은 언제나 건설과 생산을 병행할줄 알아야 하우』

『자재도 매우 부족 합니다 그리고 인제 눈이 나리면 로천작업은 못 할것이 아닙니까?』

『자재는 작업을 하면서도 해결 할수 있소 또 조선작업은 눈을 쳐가면서라도 할수 있는것이 아니요 쓸데없는 고집을 집어 치우고 조선작업을 그냥 계속 하시우』

지배인 박래원동무는 어성을 높혀 말했다

× ×

그후 함박눈이 쏟아지기시작하자 작업장은눈속에파묻히고말았다 할수없이 조선작업은 중단 되고 말았다

그러나 지배인은

『이 만한 눈에 작업을 못해? 눈을 쳐가며 일하시요』

하고 『철석같은 결심』을 종처럼 구부리지 않고 역시 『강하게』 내여 몰았다

『지배인동무?조기직장 지붕에서 눈이녹아 내려 작업장이 물속에 잠겼습니다 모다 일을 못하고 있는데 대책을 세워야 할것 같습니다』

로동자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작업상 애로조건을 말하였다

『그거야 지붕에 가마니장이나 덮어놓으면 될게지 일 못할거야 있소?』

역시 지배인 박래원동무의 고집불변한 대답이다

그후 조선작업은 목재가 떨어져 또 작업이 중단되였다 로동자들은 일손을 멈치게 된데 대하여 지배인실로 달려갔다

지배인은 그제야 업무부원 김영모동무와 잠시도 자리를 떠나서는 안되는 목조선 직장 4부리가다 반장 윤시몽동무를 자재구입으로 긴급 출장을 내어 보냈다……작업은 그냥 중단되였다

× ×

목조선은 착공후 5개월반이 훨신 지나서 제1호선이 겨우 배의 외형을 가추고 진수식을 하게 되였다

그래도 지배인 박래원동무는『감격』에 넘쳐 진수식에서 일장의 연설을 쏟았다

그러나 박래원동무의 이 기쁨은 며칠 가지못했다

그것은 박래원 지배인의 공명심이 비져낸 다음과 같은 엄중한 사실이 폭로되였기 때문이다

—목조선 제1호는 연 1천7백여 공수의 로력을 소비하고 로동자 한사람이 매일 못 한개씩을 박게 했으며 원가 계획을 300% 더 초과 하였다—

보따리를 용단성 있게 푸러버려라!

장진광 그림

로동자들의 생활문제에 관심을 돌리라

산골짜기마다 째불선이 쓰너간 고개턱아래에 주택들이 보인다 여기가 지배인 김석창동무가 지도하는 광산 지구이다

선입굴진공 박창수동무는 50리길을 걸어 오늘 안해와 함께 이광산 사택으로 이사해왔다 간단한짐과 가구들을 정돈하고난 그는

『당신은 저녁식사를준비하오 그동안 나는 광산병원에 다녀올테니…』

안해에게 이렇게 말하고 밖으로 나갔다 박창수동무는 이광산에서도 다른 생산직장과 다름없이 으레 건강진단서가 필요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병원은 아주 가까운 곳에있었다 그가병원문안에 들어서자 간호원은 『어데가아파서왔는가』고 물었다 박창수동무는 건강진단을 받기위하여 왔다고 하였다 『건강진단이라구요?』간호원은 반문하였다

잠시후에 의사가나타났다 그는 박창수동무의 아래위를 훑어보고 나서

『이광산에서는 그런것을 요구도하지않소

금년에와서 아직 한사람의 건강진단 의뢰도 받아본일이 없고 해본 일도 없소』

의사는 태연스럽게 말하였다

『참 이상한 노릇인데 이광산에서는 건강진단서가 필요치않다구……』

박창수동무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병원에서 되돌아나오지않을수없었다

얼마후 그는 기왕이면 목욕이나 할 작정으로 목욕탕있는 곳으로 발을 옮기었다 그가걷는 길옆에는 녹이 쓴 기자재들과 파철들이 여기 저기 널려져있었다 박창수동무는 여기오기전의 광산 선전원동무가 한말이 머리에 더올랐다

—한개의 못이라도 귀중한 나라의재산이다—

그런데 이광산에서는 자재들을 왜 이렇게 내어버리고 있을까? 그는 일종의 격분에 가까운마음을 느끼지않을수없었다

목욕탕에 다달으자 박창수동무는 이맛살을 찡그리였다 목욕탕에는 큰 쇠가 잠겨있을뿐……『현명』한 이광산 지도일군들은 사업을『간소화』한다고하여 두개로되어있던 목욕탕을 하나만 사용케함으로써 로력이『절약』되고 석탄도『절약』한다는 일거량득에다 하나를 더가한『일거삼득』의『명안』을 만들어냈다는것이다

박창수동무는 할수없이 발길을 돌려 이번에는 리발이나 할 생각으로 리발소에 찾아갔다 그러나 퇴근시간도 전인데 리발소문에도 쇠가 잠겨있었다 깨여진 유리문 사이로 안을 드려다보니 천정은 떨어지고 바닥에는 물에 젖은 종이와 머리깔이 너저분하게 널려져있었다

박창수동무는 할수없이『건강진단서』도『목욕』도『리발』도…… 못하고 집에 돌아왔다

집에 발을 들여놓자 한심한 낯색으로 안해가 중얼 거렸다

『글세 물길러 나갔더니 여게 사택지구 가까운곳엔 우물이 없다구해요……그리고 변소도 쓸만한것이 없고…』

안해는 이렇게 말하며 어처구니없이 그를 쳐다 봤다

이때 이웃에 있는 채광공 김윤전동무가 들어왔다

박창수동무는 그에게 이광산 지도일군들은 로동자들의 생활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적게돌리지 않는가고 물어보지 않을수 없었다

김윤전동무는「허허」웃고만 있었다

다음날 행정경리부장 윤병선동무와 담화할때 이사연을 말 했더니

『우물은 본래 여기 사택설계서에들어 있지 않았소…… 지금이라도 상부에서 설계서와 자금만 내려 오면 그까짓것쯤은 제꺽 팔수있소……』

지배인 김석창동무 역시

『검열지도 사업에 바빠서 사실 그런『사소』한 것은 미처 돌보지 못하고 있소……』

이광산 일부 지도 일꾼들은 생산문화 제고와 로동자들의 생활 문제에 대하여 세심한 관심을 돌리여야 할 것이다

친선단결의 힘찬대열

안창수 그림

쏘련과 중국을 비롯한 형제적 국가 인민들이 보내준 원조 물자들은 우리의 3개년 계획의 완수및 초과완수를 위한 투쟁을 더욱 촉진 시켜 주고 있다

이원조 물자들은 각공장 기업소 건설장들에서 복구건설과 생산에 리용되고 있으며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3개년계획의 완수 및 초과완수를 위한 우리나라 청년들의 결의

최한진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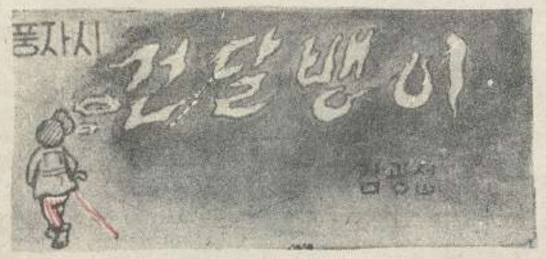
우리 나라 청년들은 3개년 인민경제 계획을 초과완수하기 위한 결의를다지는 전국 청년 열성자 대회를 가졌다 대회에 모인 청년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영예로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또한 각 민주주의 국가들로 부터오는 친선 단결의 성원은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복구 건설 투지를 더욱 북돋아 주고 있다

자유롭고 행복한 공화국녀성

최영근 그림

오늘 공화국 녀성들은 남녀평등권법령발표8주년을 맞이 하면서 더욱더 증산 경쟁에 애국적 헌신성과 창발성을 발휘 하고 있으며 조국의 평화적 건설에 거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박한균 그림



「풍자 예호에 풍한한·경향?」
어느 부피가다를 처야할지
얼른 머리에 떠오지않었다

위선 백지에 「회탐」이라 써 놓고
스르르 눈을 감았다

도르렁 도르렁 코를골든 씨는
『국가재산 좀먹는 놈』하는 소리에
깜짝이 쇠마괴 말을 지르며
후딱닥 허궁을 안고 눈을 떴다

깨고보니 마태하게도 꿈이요
싸이렌 소리 고막을 울렸다

식은 땀을 훔쳐 내시고 으례 점오면
위장에 「이상」이 아는 씨는
몸서 「괴로운」 표정을 지오시며
지금 씨가 「병원」으로 행하신다

그러나——씨가 매일 찾으시는 「병원」이란
금니빨부혀 「부먼책」 보이는 그
아주머니 직실 출집이요

점오면 복용하시는 「약」이란
씨의 생각대로 극히 간단한 것이니
얻어서 록개장 뚜그릇에 「소화제」로 새끔부섹이다

속을 굳쳐고 난 씨는 이윽고 공장 구내를 벗어나
거리에 드러서기 부터 몸 가짐에 주의를 돌리신다
노동자를 연신 굽혀가며
전기른 땅을 골라 밟노라
전신에 모진 룸동을 일으킬때

지—만큼에서
껑충 물창을 뛰어넘든 로동자
모자를 벗어 공손히 말을묻는 것이였다

점잖인 표정이 흥크러 질세라
씨는 턱으로 대답을 치르고
휘 몸을 돌처 중심을 곤아……

앞을 주시하며 걸어 가시든 씨는
갑짜기 표정이 푸러지시며
홀—저 뛰여볼 자세로 걸음을 멈추신다

바로 앞에 걸어오는 공장 지배인과 맞섰다

얼른 모자를 벗어 들며
「어디 갔다 오십니까?」
진작 어울리는 교태를 부려보신다

다시 점잖은 표정으로 곤쳐가지고
한참 풀목으로 드러가시다

공장 울타리에 나붙은
「물자애호」란 표어에 눈이 걸리자

딴엔 정신을 차리노라
뚝 앞만 보고 발을 옮기자
바로 눈앞에 불특한개를 발견하신다

「동무들 전합 해산이요
길가에 덩구는 하나의 나사못일 지라도
반드시 칩어 오시요……」

늘 회의에서
웅변을 로하든 씨와는 딴판으로
「위신」이라는 근성이
왈칵 눈에 달이되여
볼트를 진창에 꽉 밟아넣고

「예 고약하게 질다」
무색함을 멀어나 버릴듯
모자를 벗어 어깨를 훅쳤다

휘 한바퀴
공장 구내를 돌아볼 참으로
결복장 옆을 지나든 씨는
문득 걸음을 멈추어 서시며

「원 이렇게 물자애호할줄 몰라서야…」
씨는 줍이 비는 못을 주어들고
만족한 미소를 지으신다

「단단이 혼빵을 내야지……」
무설게 별르시는 씨가
사무실 쪽으로 사라지자
녀자의 다급한 소리가 들렸다

—이게 웬 일이야
아, 여게 주어 놓은 못을
어느 건달뱅이 집어갔어?….

일부 생산직장 직맹에서는 선전원들의 선발 배치를 책상머리에서 추상적으로 경해놓고 언제어디로 이동되었는지도 모르고 있으며 선전원들의 참가률이 낮다하여 선전원 쎄미날을 제때에 조직실시하지 않고 있다.

최한진 그림

—헛! 직맹문화 부장이 또 졸고 있는 것을보니
오늘 쎄미날은 다음날로 무기연기된 모양이군…

학질병에 걸린 평양연초공장 지배인

원광수 그림

증산 경쟁운동이요! 시간외 로동을 하시요 오늘만 지나가면 이달이 다가오—왜동무들은 이리 굼뜨오

후—인젠 초하루니까 열이내리는군!……

평양 연초공장에서는 증산경쟁운동을 형식적으 로 진행하며 월말과 분기말에 이르러 돌격식으로 막대한 시간외 로동을 조직하고 있다 즉 지난 1.4분기에 연 21.460여시간 4월에는 930여시간 5월에도 적지 않은 시간외 작업을 조직하였다

경공업성 제2트레스트에서는 간부배치 사업의 절차마저 위반하고 닥치는대로 사업한 결과 과괴 암래분자인 렴채훈을 자재관리원으로 채용하였다 렴채훈은 트레스트 간부일군들의 눈을 속여가며 평양시 복구공사를 과괴할 목적을 암암리에 감행할려 했다 그러나 경각성이 높은 종업원들의 손에 의하여 미연에 적발되고 말았다

걸만보고 속모른다

—네! 넷! 있는 힘 다바쳐 건설 사업에 노력하지요 헷! 헷! 헷!

혁명적 경각성은 과괴 암해분자의 음모를 미연에 적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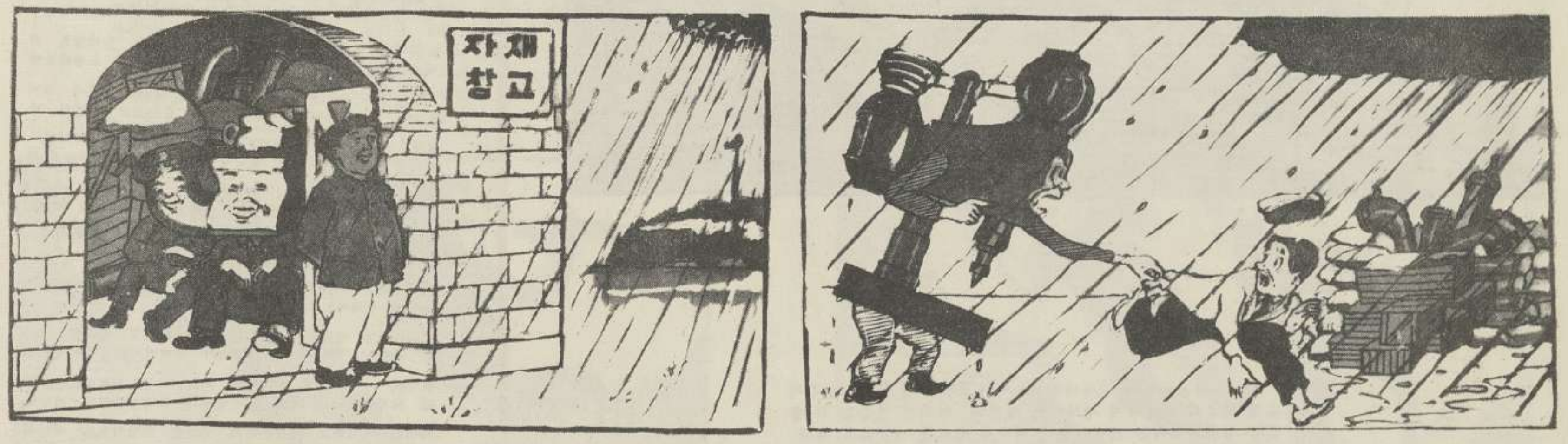
최영근 그림

요업관리국은 왜 「요지부동」이냐?

박승히 그림

화학건재공업성 요업관리국 지도 일꾼들은 자기산하 공장들에서 제기되는 생산시설품을 보장해주지 않으므로 하여 요업공장들에서 벽돌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그뿐만아니라 현장지도를 위하여 출장간 간부들마저 유람식지도로써공장들에 하등의 도움도 주지못하고 있다 결과 부분적 기업소들에서는 지난 1.4분기에 자기 계획을 달성못하고 있다

비 가 온 다



비가 와도 우리는 걱정 없네!

—자재관리원동무! 동무는 집으로가면 되지만 나는 어데로 들어가 비를 피하랍니까?

현광수 그림

송민호 동무가 지도하는 철도관리국 관하 각 역들에서는 우기대책을 철저히 하여 비가와도 화물이 젖지 않게끔 제반 조치가 되여 있다 이와 반대로 북중 기계 제작소와 리원찬동무가 지도하는 기계제작소들에서는 수입기계를 비롯한 막대한 량의 공작기계들과 원료기자재들을 로천에 방치한채 우기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죽엄을 재촉하는 자들!

박승히 그림

소위「아세아민족 반공대회」는 지난 6월 15일 부터 3일간에 걸쳐 미군의 해군기지 진해에서 열렸다 미제가 연출한 이 졸렬한 반공희극에는 산송장들인 리승만 대표를 비롯하여 대만 비률빈, 타이, 바오다이, 류규렬도,향항,및 마카오,등의 자칭 대표들이 등장하였다. 그들은 「반공」구호를 외우면서 리승만의「북진」발광에「찬사」를 하며 아세아 민족들의 독립과 자유를 반대하며 상전 미제의「힘의 정책」을「극구찬양」하였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미제와 그의 앞잡이 들이 산송장들로 부터 썩은 냄새만 심해질 뿐이다

『백박사의 수완 너무 믿었던것 이사람의 큰실수였습내다 덜레스각하께서 머리에 또 뭘 올리게 됐습내다 백박사, 책임 단단히 있는것, 깊이 깨달을수 있습내까?』

동남아세아 려행에서 굿은 비만 잔뜩맞고 돌아온 공보탁사 백락준을 대령시킨 리승만의 안면신경통은 셀룩셀죽 목소리 조차 떨려 나왔다

『반공아세아 민족대회』준비를 위한 백락준 단장의『친선사절단』은 빠나나만 실컷 먹고, 설사한 얼굴로 돌아왔던것이다

이때 간을 떨굴듯 전화의 벨이 찌르릉 울렸다 젓마의 목청부터 텍사스쩍원 인디안 사냥패의 헐릉을 이은 잔악한 목청이었다

『승만 승만, 대아메리카의 명의로 경고합내다 반공산주의 아세아동맹! 분초를 다투어 정사하시오 본체가 모자라거든 그림자까지 동원시키시오 막만 올리오 그뒤는 오만한 대아메리카 혼성악단이 담당할것입내다』

수화기를 놓은 리승만은 흠음—긴한숨을 내쉬였다 내 리익을 위해선 인류를 멸살해도 좋다는 양키 철학을 양키 철학 박사인 그는「용당」실천해야할것이였다

『이젠 자— 진해에 술을 실어나르 라 기생들도 부르라』 하와이로 시카고로 단이며 상거하지 노릇의 경험이 풍부한 리승만은 이렇게 호텔노리 폐차협정의 익숙한 푸로그람을 가지고 텍『국무총리』와 최덕신『소장』에게 불푸룰 나렸다

진해로 가자 남해바다 푸른 물위에 주지육림의 배 띄우러 가자고 늙은 막난이들이 울부짖었다

진해로의 길을 재촉하면서 —— 해리스 자선이 기생들의 선두에 섰다

국기들을 꽂고 돌아가던 준비위원 한작자가『이건 나도 처음보는 국걸세』하고 중얼거리는데 또 한작자가 절제하기를『이사람아 부질없이 혀까불거리다간 어느새 목 달아나는지 모르네 그깃발이 류큐렬도 표식이라데』였다

남해바다 해풍에 펄력이는『아세아각국』의 깃발들이여!

모두가 낯서른 깃발들이로구나 홍콩깃발 마카오 깃발 류큐렬도깃발등등 모두 합계해서 전원30여명인『아세아반공대회』의『만국기』란다

진해의『진미』에 침흘리는 상거라지떼 가 기어든다

모두가 양키의 로봬우를 생기있는 초상의 형상을 꿈꾸던 사진사들조차 장탄식한다

『초라한 저물골물을 참아 어떻게 필림에 기록한담!』

이렇게『아세아 반공 민족대회』의 막은 드디어 올랐것만 무대는 스포트라이트속에 명백히 들어나 무덤속 관을 헤치고 나온 동구부러진 유령들이 그배우들이었다

대아메리카 혼성악단의 음악효과 또한 아무리 음뢰인 그누구에게도 정녕 장송곡이다

난생처음 보는 낯서른『국기』들을 꽂고 둘러앉은 저 떡안개같이 맥없는 유령들이『각민족대표』를 표방하건만 이유령들은 자기민족의 말을 무덤의 정적 속에서 잊어 먹었다 뼈는 썩어도 결코 잊을수 없는것은『상전의 말 영어』였던것이니 이『대회』에선 모두가 영어로 말하였다 백아관 타이푸라이타가 엮어낸 그문장을 몇번 련습해 익숙해진 그대로 상관의 물거품속에서 펑퐁대만한 괘도의 주인공들인『각민족대표』들이 영어로 자기『민족의 의사』를『대변』한 다는 그모든 언어가 주어짜면 단한마디, 월가의 구호『워— (전쟁)』였다

리승만은 이『대회』에서『오—주어』의 말투로『대포밥평이로 뭉치자』고 호소했다

이와같이 아메리카의 국경에서 수천마일 상거한 머나먼 동방의 한나라 바다가슴에서 아메리카의『방위선』곧 전쟁의 발화선을 설정하고 있는 미국 전쟁광들은 한편 제네바에서는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의 성실한 기대를 배반하고 조선문제의 토의를 일방적으로 파탄시키는『서방측 16개국의 선언서』를 조작해 내는등 워싱톤의 예정된 음흉한 전쟁 푸로그람을 진행시켰다

이리하여 진해의『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리승만은 애리쓰와 함께 줄곳 낙시질에 흥겨워 했다하는바 아메리카상전의 대포밥조달을 낙시질하듯 해낼수없는것은 물론 반드시 머지않은 장래에 리승만은 자기의 낙시대와 함께 고기배를 불리우고야말 것입은 그의 필연의 운명이다 엄숙한 력사의 교훈들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바와같이 전쟁을 흥채하는 모든 광인들의 피치못할 운명 그것은 죽엄이다

남조선 농민들의 비참한 처지

리영춘 그림

미제는 오늘 남조선 농촌에서 40만석에 달하는 미곡략탈에 광분하였다 최근 초근목피로 연명하고 있는 남조선 농민들로부터 략탈한 이 미곡은 일본으로 수출하며 그대신 인민 학살과 전쟁을 목적하는 살인무기를 실어 오고 있다

미국식 교육이 비저낸 비극

소위「자유세계」를 자랑하는 미제는 남반부에서 파스쏘리찌즘의 독소로써 조선 인민의 애국주의 사상을 말살하려고 하며 대양건너 미국의 퇴폐한 생활 양식과 부패한 문화를 강요하고 있다 이런 악영향은 천진 란만한 소년들에게 까지 미치여 작년 1년 동안에 소위 부산 소년 심리원에서만취급된 소년범죄 사건이 1.176건에 달하고 있다

정신을 마취 시키고 나서

리영춘 그림

미국식 야수성을 발작케 한다

유엔 간판을 내 걸고 공공연하게 략탈을 감행하는 미제

장진광 그림

소위『유·엔민사처』에서는 남조선 인민들을 략탈할 목적으로 남조선의 어장들을「경비구역」으로 만드러「어로허가」「도항증」등을 고가로 매매함으로써 어민들의 생활조건을 박탈하고 있다

6월2일 서울에서 미제와 리승만 도당간에 소위「한미석탄개발기술원조」라는 매국협정을 체결하여 남조선의 탄광들까지 모조리「유·엔 한국부흥 위원단」에게 팔아 넘겼다

장진광 그림

해적의 대리점

한계홍

六월二十三일이였다

고요에 잠긴 대만 이남 공해에 쏘련 유조선『뚜아프쎄』호가 이르렀다

때아닌 상공에 불숙 요란스러운 폭음이 울렸다 U S의 또렷한 마-크를 감추지도 않고 정찰기가 뱀돌이 쳤다

정찰기의 출발신호를 받은 군함에서는 소동이 벌어졌다 국제법도 아랑곳 없이내어 동맹이친 해적의 대만지점장 장개석이의 졸개들의 소동이다

배앗듯 함장의 일장 명령이 『엄히』 터져나와 끝도 뗏기전에 군함은 출발을 서둘렀다

『출발이다 五월 十三일에 파란상선『고트왈드』호를 족치든 솜씨다 전속력을 내어라!』

또다시 해적의 졸개들은 공해에서 상선을 불법 나포 하고 승무원들을 억류했다「개가」의 뉴쓰를 태양전너 상전에게 알린 서자「총독부」자리에서는 해적들의「축하연」이 벌어졌다 멘처음 야자수 술잔을 들고 입을 버린것은 태양전너서 온 해적의 고문이 였다 『장개석 당신은 우리 대만지점장으로 등록된 영광을 다시 다짐 받았소』

장개석은 대륙에서 도망칠때 부러진 다리를 끌수 추겨들었으나 마음은 실이 괴로웠다 상전의 충실한 졸개로 해적의 지점장으로 따도 동단절은 본래부터 바라든바이 였만 그래도 지난날이 자꾸만 회상되였다

『고문나리 아무리해도「국부」라는 칭호가 내게는 소용됩니다』자나깨나 잊지못할 배실을 털 어놓았다

『뭐이 어째 당신의 신세를 보람할려야「국부」좋은 좋아 옛날이오 옛날 六○억 딸라를 넘고 기른 미련이 당신이요 하루 아수해서 일자리를 부쳐줬으면 천만 감사할일 이제 당신 팔에 해적 밖에 하지 않으면 뭘 하겠소』

『고운나리 주제 넘은 말 제발 살려주시오 그래도 해적은 공개되지 말어야』

어안이 벙벙한 고문은 가련한「국부」의 신세를 조소하면서 공개된 비밀인 해적의 지점장의 소행을 주서대었다 1950년후에만도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파나마 희랍 서부독일 분란 및 이태리 상선을 습격한「공로」로 연명하여온「국부」의 소행이 바로 해적이 아니라고 부인 할수 없다는것을 따이르듯이 되푸리했다

『더글러스 맥아더장군 바로 그도 저명한 해적이라는것을 기억하오』

부러진다리에 힘이 솟는듯 벌떡 일어서면서 탁자를 쳤다

『해적 호…뭐이든지 호-』

애꾸진 옛꿈이 환영으로 탁자위에 막놓였다 구데타로 정권을 잡든일이 떠오르자 뒤이어 일본사무라이들을 피해 중경에 꼬리때든일이며「장군」이란「장군」을 모주리 왕정위 위군에 투항시켜 반공을 하든 일이며 송미령이의 치마에 싸워 마-샬의 발통에 키쓰하며 무기와 항공력을 얻어 대륙을 통치하려든일이며 화평하고는 금시 내전을 일으키든 일이며 마지막에는 해방군 백만대군이 양자강을 도하하는 통에「국부」의 도장마저 줄지 못하고 남경에서 이곳 대만에 줄행낭 치른 일이며 옛꿈이 연신 불려들었다 대만 구석에서 초조한 날을 보낼려할지음 상전이준 해적의 지점장 그것은『국부』에게 있는 마지막 벼슬임을 자신도 느꼈다 노기와 철을 발악과 상심 서로 충착된 감정이「국부」의 심장을 흔들었다 사위에 보이는 모든것이「국부」의 분통을 치밀어 주었다 『해적 호! 뭐이든지 호』

장개석은 그만 그자리에서 부러진 다리를 추겨들고 문을 나설려했다 활작열린 문앞에는 야자수 호느러지고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모든 자연은 예나 다름없이 그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자연도 변했고 현실도 엄열하였다 장개석이 다리가 부러지듯「국부」의 모든 옛꿈은 산산히 흐 터졌다

새중국의 대표가 참가한 제네바거리며 일어선 6억의 인구며 스플처럼 이러선 공장굴뚝이며 오곡이 무르익은 대륙이며 부정할수없는 엄연한 현실이「국부」의 뇌수를「습격」했다 문지방을 나설려든 해적의 대만지점장은 설자리를 찾지 못했다 그만 발부친 마루까지 깊은 심연속에 허무러져 내려갈듯 앗득했다 그만 무슨 기괴한 힘이나 생긴듯 고문의 옆에 밧싹 다아서며 허공을 향해『툭꽉』했다

『더글러스.맥아더 당신의 후예로 아무것이든지 호!』

해적의 본영 월가의 충실한 대만지점장의 애원과 통곡 울분과 발악이 비위에 맞었는지 고문에게는 호뭇한 마음이 더울렀고『격려사』를 첨가할 마음의 충동을 받았다

『맥아관은 당신의 공로를 찬양하오 그러나 당신은 모든 일을 맥아관이 시키는 명에 따르지 못하오. 비행기를 주고 군함을 주는것 그것은 중공에 대항하라는것이요 명심하오 여하튼 비밀이요 모든것은 비밀이오』

막아닌 막에 자기의「공로」를 찬양받을 심산으로 함장이 나섰다 그는 자기가 준비된 해적의 졸개라는것을 다짐받고 싶었다「충분한」지식이 있는것도 자랑하고 싶었다

『고문나리 여러나라 상선을 나포한 지점이 모다 미국의 관제하에있는 공해입니다 국제법에도 관계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취없이 끌아 왔습니다』함장의말이 채끝나기도전에 노기대발한 고문이 말을 가루채었다 『닥쳐! 닥쳐! 국제법이 우리에게 무슨 아랑곳있는 문제가?』의기양양한 고문은 해적의 자서전이나 외우듯이 일장 연설을 하겠다 그는 마지막 조선에서있은 일을 말하는대흥을 더 보해었다

일획 황금을 꿈꾸고 침략의 발을 디려 놓든 샤만호사건이며 남연군분묘도굴사건이며 그 모든것이 먼날 앵그로 삭손의 배가 아메리카 대륙에 닿고 인디안의 팔을 짤라 유지에 넣든 월스트리트의 선조들의 천직인 해적의 전통이 때때히 계승되어 착수되었든것과 그리고 나중에는 톡톡히 경을 츠리든 일까지 감출며 하지않었다 더욱이 해척장군 미글러스 맥아더의 패가 유·엔의 푸른 깃발을 든고 조선땅에 전쟁의 불길을 퍼붓던 어제 일을자랑꺼리로 주어대었다 그러나 사건의 마지막끝을 마출때 세계「최강」의 미군과 졸개들과 무수한 딸라와 폭관과 세균「병사」까지 동원하였으나 조선사람에게 굴복했다는 말은 실로 하기를 주저했다 그리고는「세계최강」의 나라며 해적의 괴수로 등장한 오늘의 신세를 위엄성있게 졸개앞에서 말하고 싶었다

『함장 내 눈으로 보라 중공군이「침략군」이라고 유·엔이 결정한 사실을 묻으는가? 우리의 자유며 모든것은 이렇단 말이야!』

찬양받을 심산으로 나선 함장의 막이 찌어지는 꼴을 본 장개석은 한마디 던지지않을수없는 곤경이었다

『고문나리 바로 그렇소이다 에나 때일이나 나는 국제법이란 염두에 없었소이다 그저「기상의명령」인 맥아관이 부르는대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는 수많은 상선을 나포했건만 적자예산을 구출할길 없습니다 상선이면 상선 닥치는 대로 해치워야 합니다』

자기도 모를 두서 없는 말을 주어 대이고도 대만 지점장은「축하연」을 통하여 버려진 사건중에서는 방금 자기가 배알든 말이 제일이라는듯 그는 고문의 앞에 다아서며 부러진 다리를 끌수 추겨들었다

고문은 해적의 대만지점장의「맹서」에 주해를 부치는 것을 잊지않었다 ……

『대만지구는 호노르루에있는 태평양 함대사령관의 관할하에 있는것으로서 극동 해군사령관의 관할에는 속하지 않소』『이렇게「훌융한」국제 법!』속마음으로 외워보고 감개 무량한 장개석은『그전 그렇구말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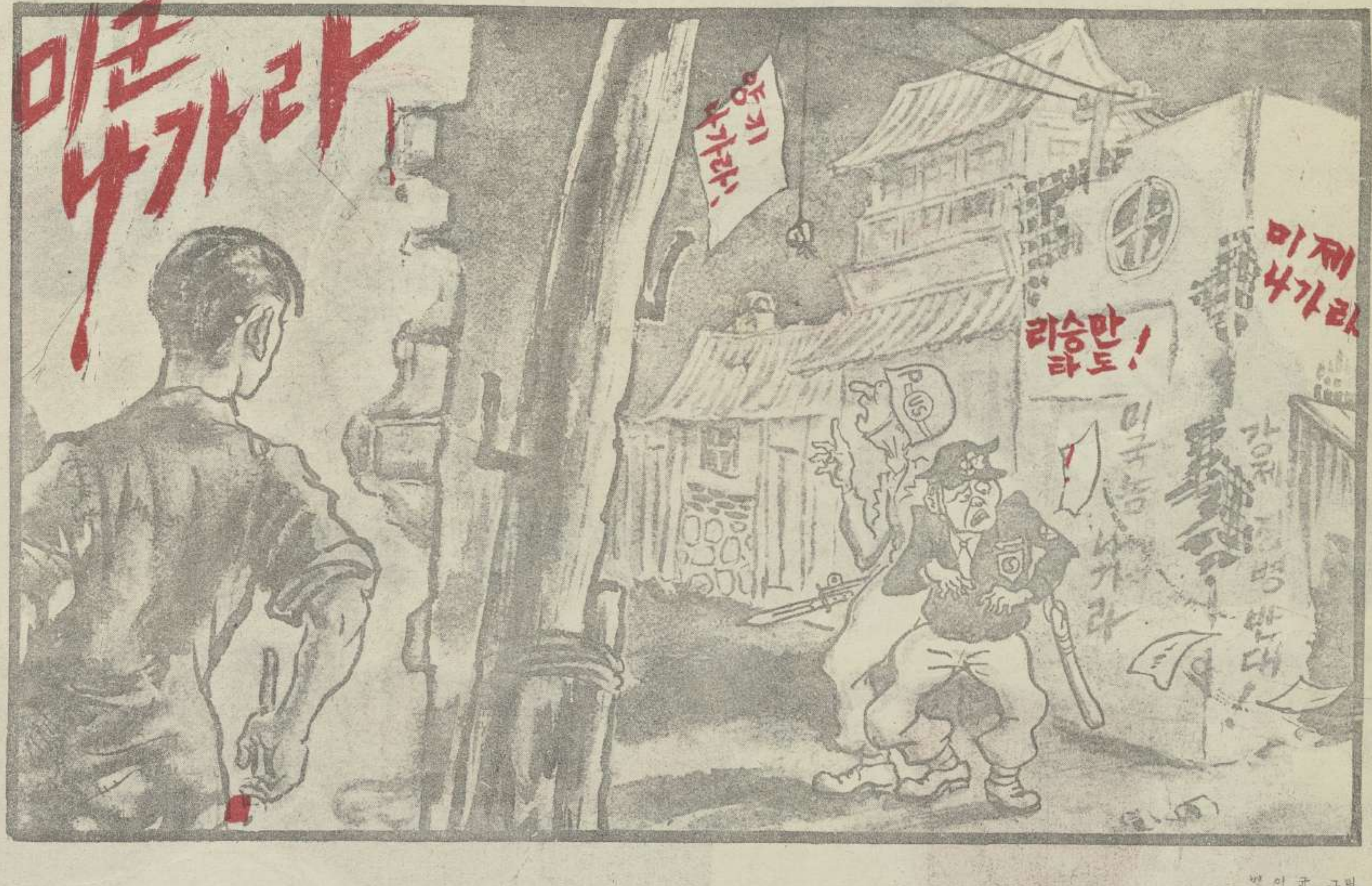
고문과 지점장이 주고 받은 그『신통한 국제법 주해』는 문을 새어 흐느려선 야자수에게까지도 들렸다

말못하는 변함없는 자연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여기는 야자수마자 폭소를 터트리고 앙천대소했다

『극동해군』이건『태평양 함대』건 그것은 미군이 아닌가? 아무리 혹을 떡으로 분별없이 꾀까리는 해적들이라도 해적은 해적이며 해적의 대만 지점장은 지점장이 라는 엄연한 「전통」을 뒤집지는 못할것이다 혹을 떡으로 뒤집는 명수들의 발악의 마지막 시각에는 혹은 혹대로 고질로 남을밖에 변길은 없을것이라고…… 야자수는 몸을떨며 폭소했다

미군 나가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갈망하는 남반부 인민들의 진실한 요구를 말살시키기 위하여 리승만 역도들과 미제 살인귀들의 테로 폭압은 더욱 혹심해지고 있다 그러나 남반부 인민들은 오늘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의 민주기지 강화를 위한 장엄한 투쟁에 고무 추동되면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박이균 그림

미군—— 또 후쳤구나! 또부쳤어!
괴뢰군—— 아이쿠 숨이왜이렇게 막히오?

東京都千代田區富士見町二ノ四
取扱店 學友書房
振替口座東京八七七九

조선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저해하는 미제의 숨길수 없는 정체

RETURN TO
THE LIBRARY OF CONGRESS
DIVISION OF ORIENTALIA

장진광 그림

책임주필 장진광 발행소 활살(시사 만화잡지)사 인쇄 1954년 7월 20일
인쇄소 평양특별시 국립종합인쇄소 발행 1954년 7월 25일
ㄱ—20092(정가 90원)